

SAM News Letter

SAM AFRICA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소식지

[제 2 호]

발행일: 2014년 12월 11일

SAM은 Student Arise Movement의 약칭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크리스천 중심의 글로벌 운동으로써 청년 세대를 일깨워 그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열방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본 News Letter는 이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SAM AFRICA와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제공될 것입니다.

2014 하베스트 컨퍼런스(Harvest Conference)¹⁾ 두 번째 소식

2008년 5월 'Africa Arise' 라는 이름으로 첫 컨퍼런스를 시작한 이후, 하베스트 컨퍼런스라는 정식명칭으로는 7번째 모이는 2014 하베스트 컨퍼런스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대회 주제 '파수꾼(The Watchman)'이다. SAM Kenya의 대표인 케빈(Kevin)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12월 10일 현재까지 800명의 학생들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이 중에서 참가비를 완납한 학생이 135명이라고 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과는 현저히 달라진 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전홍보와 동원사역에 관한 것이다. 동원사역의 책임을 맡게 된 펠릭스(Felix Ochuot)는 케냐 전역을 방문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홍보하고 참가신청자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아웃리치팀이 보고 느낀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금년 하베스트 컨퍼런스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동원사역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팀과 케냐 대학생들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인 ‘파수꾼(The Watchman)’은 이 나라와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아프리카 대륙과 가족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일으키고 돌볼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문사역을 위해서 나이로비 본부사무실 소속의 5인 위원회로 아웃리치팀을 조직했습니다. 이 팀은 모든 지역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며 각 지역과 대학교의 대표들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해당 지역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베스트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을 권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결망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등록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oi 의과대학을 찾아가간 아웃리치팀



하베스트 컨퍼런스 홍보동영상:
좌측이 아웃리치 코디네이터, 펠릭스

지난 대회들과는 달리 사전에 제작된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와 홍보 동영상²⁾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AM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동영상²⁾은 벌써 3만 명 이상이 감상했을 정도로 하베스트 컨퍼런스를 알리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놓인 특정지역을 찾아가기 위해서 약 600Km 이상을 달려갈 방문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과 동원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왜 좀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죠?” 하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이로비와 너무 멀어 찾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많은 선교

1) 하베스트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프리카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각각의 부르심과 역할을 확인하는 대규모 집회.

2) 2014 하베스트 홍보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0Ew5UxUEWZY#t=13>

단체들과 동원단체들이 주로 나이로비와 같이 주요 대학들이 밀집된 도시에서만 활동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륙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수많은 대학교와 전문대학들이 내륙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800명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를 위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나라와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또한 이들이 전국에 걸쳐 정기적인 제자훈련과정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2014 하베스트 컨퍼런스는 곧 개최되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을 아프리카 “파수군”으로 세우신 주님과 의 맞지 못할 만남을 주선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볼라 사태로 예전에 비해 한국에서 대회를 위해 참가하는 참가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2014년 하베스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SAM Africa의 지도자들과 이를 뒤에서 돕고 있는 씬 인터내셔널 서울 사무실에서 제공해 준 기도요청 목록이다.

1) SAM 2014 하베스트 컨퍼런스를 위해

- 금년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캠프가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 참가학생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목표 1000명 / 현재 800명이 사전 등록함)
- 컨퍼런스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임하여서, 앞으로 아프리카를 끌어갈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 한국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 팀앤팀의 가르센 현장탐방일정(한국인 10명, 12월17일~19일) 중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 컨퍼런스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예산 8천5백만원 중 현재 6천만원 확보됨)
- 준비하는 스태프들 안에 주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2) 2015년에 진행되는 ‘레제샤 캠페인’³⁾을 위해서

-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 전국순회 일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의 선한 네트워킹이 일어나서 서로 간의 축복이 되기를 위해서
- 레제샤 팀을 섬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운전 및 통역)이 일어나도록
- 레제샤 팀이 국내에 체류 중에 머물 숙소를 위해서(방 3개 정도의 아파트나 주택)

3) SAM Africa를 위해서

- 사역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이를 통해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동일한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 SAM Africa의 비전이 동아프리카 전역에 ‘단비’와 같은 생명수의 역할을 하도록
- 리더들에게 SAM Africa의 비전을 실제적으로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 2014년 하베스트의 마지막 준비과정까지 잘 준비되도록,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해서

4) 씬 인터내셔널(한국 사무실)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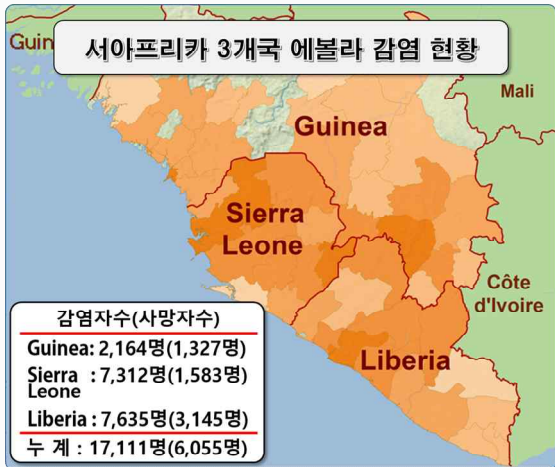
- SAM Africa를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후원해 나갈 수 있도록
- 조윤정 선교사, 홍유진 간사의 케냐 하베스트 참석일정(12월 16일~12월 27)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모든 일정 중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베스트를 잘 섬기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 하베스트, 레제샤 캠페인, 장학금 모금 등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위해서

3) 2015년 4월25일~6월25일까지 2개월간 SAM Africa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레제샤 캠페인’ 진행. ‘레제샤’는 스와힐리어로 회복이라는 뜻이다. SAM Africa는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자인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퀴어미션 공동체(팀앤팀의 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레제샤 캠페인’은 이 놀라운 사역을 보기 원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케냐인 특유의 경배와 찬양과 그들의 은사들을 선보임을 통하여 케냐의 문화와 친숙해지도록 하고, 간증을 통하여 SAM Africa 대학생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삶의 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팀앤티프와 SAM Africa의 '시에라리온 에볼라' 리포트(1)

지난해 12월 서아프리카 기니 동남부 삼림지역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와

의 싸움은 지나하기만 하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단기 대응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에볼라 퇴치를 위한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발생국의 대응 현황은 WHO가 제시한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WHO는 지난 10월부터 60일 안에 에볼라 발생 지역에서 감염 환자의 70%를 격리하고 사망자의 70%는 안전하게 매장한다는 '70-70-60' 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러면서 단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희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현재 기니 정도만 목표치에 근접했을 뿐 다른 서아프리카국가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라이베리아에서는 감염자 가운데 23%만 격리 조치됐고 시에라리온 역시 감염 환자 격리율이 40%에 그쳤다. 사망자 매장률도



[자료: 세계보건기구(WHO)/2014.12.03. 현재]

각각 26%와 27%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1월까지 감염자 100% 격리, 사망자 100% 안전 매장이라는 WHO의 최종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근 수주일 동안 라이베리아와 기니의 추가 감염자 수가 감소추세라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시에라리온에서는 여전히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의 가족으로 부름 받은 팀앤티프와 SAM Africa는 에볼라 퇴치에 기여하고자 마침내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다음의 편지는 11월 26일에 보내온 것으로 시에라리온에서의 첫 발걸음에 관한 것이다.



시에라리온에서 소식 전합니다. 한국의 추운 날씨가 그리울 정도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지금은 연중 가장 시원한 우기(Raining Season)이기에 이 정도라고 하며, 3월부터는 너무 더워서 신고 있는 신발이 땀으로 흥건해 질 정도라고 이곳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니 대략 전에 일하던 남수단 보마 정도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나이로비 공동체 모임을 마치고 밤 10시경 나이로비를 떠나 벨기에 브뤼셀, 세네갈의 다카, 기니의 코나크리를 경유하여 11월 23일 밤 8시경에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롱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시 지문 날인 하는 손가락 스캔장비에 한 사람이 하면 반드시 장비 표면을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스캔 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입국한 모든 사람의 체열을 측정하여 입국을 허락하는 엄격한 절차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케냐 팀앤티프 공동체 에스더 목사님의 기도친구인 Veronica Grace와 남편 Joseph Kanu부부의 인도로 무사히 숙소에도착하여 오늘까지 시에라리온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MAFA(Messianic Ambassadors For Africa-Sierra Leone)를 세워 정치와 종교계를 통해 나라를 개혁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MAFA는 시에라리온에 NGO로 등록 되어 있는 법적인 기구라서 팀앤티프가 시작할 때 함께 기반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라리온에는 영국정부와 국경 없는 의사회(MSF)가 주도하는 에볼라 치료센터가 전국에 56곳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신 보도에 의하면 매일 100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만약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내년 중반에는 위기 상황을 극복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 생각은 아프리카 문화로 볼 때, 측정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으리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수도 프리타운(Freetown)은 가장 환자가 적게 발생한 지역이지만, 모든 공공장소 입구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출입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체열을 측정하고 나서야 통과 시켜 주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은 잠정휴교 상태이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는 하지 않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상점과 음식점은 3시 정도에, 은행은 아예 1시 30분에 Close한다고 합니다. 거리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악수를

하지 않도록 권면되고 있어서 참으로 어색한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국제NGO 차량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Project를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며, 모든 호텔에는 이러한 구호단체요원들로 가득하여 방을 잡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도 World Vision 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에볼라로 죽은 시신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and Resources) 장관과 회의가 예약되어 있었지만 장관이 하루 종일 대통령궁에서 긴급회의 중이라서 대신 국장(Head of Rural Water Supply)과 회의를 하고 오늘 다시 장관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장과의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수자원부는 Unicef와 함께 WAT/SAN(Water & Sanitation)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난주에 World Bank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2. World Bank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빠른 시간에 지원 가능한 자금을 결정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이들이 제출한 Proposal을 Scan 하여 동봉합니다)
3. 전체적으로 팀엔팀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자 치료소 설치예정지 전경]

- ① 국경없는 의사회가 돌보는 전국의 에볼라 치료센터 56곳 중 한 곳도 지하수공급시설이 없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진 곳에 긴급히 치료시설 설치과정에 일어난 상황으로 판단 됨.
- ② 문제는 World Bank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재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고 해도 이 나라 수자원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개발 장비가 한 대 뿐이라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함.
- ③ 수자원부 국장은 팀엔팀이 빠른 시간에 장비를 케냐에서 옮겨 올 수 있다면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후 에볼라가 종식되더라도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함.
- ④ 전국에 설치된 펌프는 현재 18,000개 인데, 50% 정도는 고장상태로 방치

중이며, 이미 월드뱅크도 이 펌프들을 수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팀엔팀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함.

- ⑤ 바이오샌드필터(BSF) 역시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예산과 기술의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만약 팀엔팀이 한다면 모든 것을 지원 하겠다고 함.
- ⑥ 이 나라는 1년중 6개월이 우기이기에 만약 Water Pan과 같은 Project를 한다면 역시 모든 지원이 가능함.
- ⑦ 수자원부 국장은 정부가 팀엔팀과 계약을 맺고 이 모든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NGO 등록을 지금 신청하면 내년 1월이면 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함. 허가 전까지는 이곳 현지 NGO MAFA Sierra Leone 이름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일단 저와 케냐에서 긴급히 투입 될 Thomas, 그리고 One Driller의 Work Permit을 이 단체를 통해 발급 받은 이후 팀엔팀으로 이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⑧ 이 나라는 모든 NGO에게 자동차구입을 비롯한 모든 수입장비는 관세면제혜택이 제공되며, 차량이 한국과 같은 왼쪽핸들이어서 한국에서도 차량을 보낼 수 있음.
- ⑨ 향후 더 구체적인 회의를 해 가겠지만 일단 케냐에서는 장비 한대를 비행기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오늘부터 장비가 도착하면 필요한 현지 Base로 활용한 집을 구하고, 필요한 차량들을 알아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에볼라 치료장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기에 강력한 자동차가 필수로 준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에볼라 긴급구호사업을 위해 2억원의 재정이 이시원대표로부터 제공되어 팀엔팀과 시원스쿨의 공동긴급구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진의 김재철 대표께서 이번 Assessment Research를 위한 재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World Bank 지원자금이 언제 얼마나 공급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최소한 6개월을 자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에라리온 에볼라 긴급구호는 단순히 에볼라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보다 모든 면에서 10~20년 낙후된 서부 아프리카 전체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대학 CAMPUS를 방문하여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는바, 모든 대학에 Campus Union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의 20%정도가 기독교인이고, 50%가 Muslim이라고 하며, 종교적인 갈등은 전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팀엔팀의 기반을 활용하여 SAM 역시 잘 시작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올 해 SAM Harvest가 끝나고, Evola 백신이 개발되면 케냐 SAM에서 서부 아프리카 개척팀을 구성하여 시에라리온, 리베리아, 그리고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의 중심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서서히 SAM을 시작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한 것은 에스더 목사님이 소개한 MAFA 라는 단체는 대학과 교회를 비롯해서 정부의 대통령도 신뢰하는 좋은 Network을 가지고 있어서 SAM이 시작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번 SAM Harvest 참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들어오면 당분간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팀엔팀 케냐의 Sammy 대표 비서로 있는 Thomas가 기꺼이 이곳의 행정과 재정을 맡아서 오겠다고 자원했고, 새로운 Driller가 역시 어려움 없이 장비와 함께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Drilling Team은 환자들이 머무는 병원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조심 할 일이 많지만 저는 환자들과 접촉할 일이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모두 독감 조심하시기를... 프리타운에서, 이용주 드림

12월 5일에 보내온 두 번째 편지에 따르면, 현지에는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거의 전무하여 케냐에서 장비뿐 아니라 물자까지 모두 구입하여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나이로비에서 장비 및 물자 수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볼라 감염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보건부 국장의 보고가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피부접촉이 되지 않도록 옷깃을 살짝 스치는 인사로 대신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으로 에볼라로 인한 현지인들의 긴장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장비와 물자수송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고통 속에 있는 시에라리온 국민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서부아프리카 주요 3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모니터링 자료, [팀엔팀 국제협력팀 제공]

WHO 공식 에볼라 집계 현황[11월28일(라이베리아), 30일(시에라리온, 기니) 기준]					출 처	
주요 감염국 현황	감염 확진	감염 추정	감염 의심	합 계		
기니	발생	1,929	210	25	Ebola Response Roadmap	
	사망	1,117	210	0		
라이베리아	발생	2,801	1,792	3,042	Situation Report Update 3 Dec 2014	
	사망	N/A	N/A	N/A		
시에라리온	발생	5,978	79	1,255	International SOS	
	사망	1,374	174	35		
총 계	발생	17,111				
	사망	6,055				
기 니	치료 센터	3개의 ETCs ⁴⁾ 에서 245명이 격리치료 중이며 감염환자 증가에 비해 치료소가 매우 적으며 동부지역은 자국치료소가 멀어 국경 건너 말리의 ETCs에서 격리 치료 중.				Ebola Response Roadmap
	시신 매장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118건의 안전한 매장 진행됨. 국제적십자사를 필두로 진행 중이며, 기니아에 55개의 매장팀이 구성됨. (사망자 수습의 80% 처리 가능)				
라이베리아	치료 센터	3국 중 격리 치료 공급이 가장 높은 국가로 12개의 ETCs에서 1,269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최근 2개의 CCCs ⁵⁾ 가 문을 열었다.				Situation Report Update 3 Dec 2014
	시신 매장	국제적십자사를 필두로 77개의 시체처리팀 구성(사망자 수습의 77% 처리 가능)				
시에라리온	현황	11월 마지막 주, 537의 신규 감염자 발생. Freetown에서의 감염 상황이 악화됨(Freetown 신규 감염자 수: 202건) 여전히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관심이 되고 있음				
	치료 센터	현재 12개의 ETCs에서 517명이 격리 치료 중(CCCs에서 190건 처리)이며 8개의 ETCs가 건축 중에 있음.				
	시신 매장	국제적십자사를 필두로 94개의 시신이 매장됨(사망자 수습의 80% 처리 가능)				

4) ETCs(Ebola Treatment Centres): 20~400개 침대 수용 가능한 격리 치료 센터

5) CCCs(Community Care Centres): ETCs를 대신하는 곳으로 8~15개 침대 수용 가능한 격리 치료 센터